

지역 소식통

김제시, 2024년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개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7일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시에 신청해 선정된 기업에 취급 금융기관(NH농협은행 김제시지부, 전북은행 김제지점, 국민은행 김제지점, IBK 기업은행 호남지역본부, 하나은행 전주금융센터, 우리은행 김제지점)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이며 대출 한도는 기업당 최고 5억원 이내로, 대출금에 대해 4%의 이차보전금이 지원되며, 여성기업, 청년기업, 김제시 표창을 수여받은 기업은 추가로 1%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지평선 과수연합회 출범

김제 과수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 김제 지평선 과수연합회가 출범식을 개최하고 사과·배·복숭아·포도·체리 등 과수연합회 구성을 알렸다.

7일 실시된 행사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김영자 김제시의장을 비롯한 김제 과일 산업을 대표하는 김광식 김제원협조합장, 윤세천 지평선조공대표, 서창배 농업인회회소회장 등 관계기관과 연합회원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와 응원을 보냈다.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정성주 회장은 본격적인 연합회 운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농업인 소득 증대와 살고 싶은 농업·농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제 지평선 과수연합회 출범식은 김제 과수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김제 과일 품질 향상, 브랜드 가치 제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과수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심포 마리아 조성 최종 점검

기본구상·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보고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역 휴양형 해양레저관광 거점인 심포마리아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최종 점검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7일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 마리아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마리아와 배후시설이 들어설 (구)심포항 일원은 새만금 고속도로와 동서도로 교차점에 위치하고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국제공항이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다.

특히 이 지역은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 위치해 있어 해수면에 비해 수면이 정온하고 27년 개원을 앞두고 있는 국

립 새만금수목원을 비롯해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예로부터 유명한 서해안 낙조로 유명한 천년고찰 망해사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뛰어나 마리아 개발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

시는 지난 2006년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로 지정해제됐던 옛 심포항을 폐 지방어항에 대한 리제네레이션 개념으로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수상교통계획으로 마리아 및 유람선 기착지로 선반영했으며 2016년 방수제 만경7공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리아 호 안시설, 고정식 유람선 기착지 2선식, 선양장 등을 조성 완료한 상태다.

이후 시 차원에서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2018년 해양수산부 내수면 마리아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으

며 2020년에는 국가계획인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아 기본계획'에도 최종 반영시켰다.

지난해 마리아 항만분야와 해양레저관광분야, 투자유치분야, 도시개발분야 등 각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전북지역과 새만금 개발권역이 연계된 지속성과 비전을 갖춘 특화된 사업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용역을 추진해 왔다.

1년여 간의 용역기간 동안 수 차례 전문가 자문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심포 마리아만의 특성과 전략과 함께 향후 원활한 민간사업자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논의됐다. 시는 이를 통해 'Symphony of the Simpo'라는 슬로건으로 심포마리아를 김제만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마리아 및 배후시설로 다양한 휴양·레저시설과 상업시설이 포함된 최적의 사업화 방안을 수립했다.

시는 이번 용역안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에 심포마리아와 배후개발부지 조성안을 반영 추진하는 한편 민간 투자자 참여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전방위적 투자환경 분석을 통해 심포마리아의 실행력 있는 사업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심포 마리아는 새만금 고속도로와 동서도로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새만금수목원, 해양생명과학관 등 관광인프라와 만경강이 품고 있는 매력적인 서해안 일부를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이 어우러진 해양레저관광의 최적지"라면서 "김제시가 해양레저관광 거점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계획 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7일 정성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 마리아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김제 2곳 선정

청년주도 로컬재생, 창업농 실천교육으로 지역정착 높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7일 '2024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5개소 중 2개소(영일동조합, 오후협동조합)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1억원에 달하는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과 상호작용·상생이 가능한 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청년단체를 선발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영일협동조합(대표 서경호)'은 예비 청년창업농들의 실전 농업교육을 통한 청년 농업인들의 지역정착을 도모해 현장 중심의 작물별 농업교육과

지역 청년농업인 소통, 가공 유통까지 실현하며 김제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오후협동조합(대표 서수인)'은 김제시 축산면에서 이미 유명한 청년 창업가로 지역 유류공간을 재생해 단계별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시 청년 정책은 5개분야(일자리, 창업, 문화·교육, 참여·주거복지, 활동지원) 총사업비 93억원이 투

입된다. 분야별로 먼저 고용안정 및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 창업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창업지원을 추진한다.

교육분야는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및 김제시사랑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확대 운영했으며 주거복지 사업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 및 결혼 축하금 지원, 다같이 돌봄 품앗이 확대 등을 통해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청년공간 서포터즈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받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삼레딸기 축제'가 삼례농협 인근 공영주차장 일원에서 열린다.

'완주 삼레 딸기 축제' 개막

오늘부터 10일까지 삼례농협 인근 공영주차장 일원서

딸기 농가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완주 삼레딸기 축제'가 열린다.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삼례농협 인근 공영주차장 일원에서 '제22회 완주 삼레딸기 축제'가 막을 올린다.

완주 삼레딸기축제제전위원회는 삼레딸기의 뛰어난 맛과 품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체험행사를 준비했다.

딸기 수확 체험과 딸기케이크, 딸기 파이 등 딸기를 이용한 만들기 체험 및 판매와 딸기초코분수 운영 등 딸기를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안전체험부스, 물고기 체험, 쫄면무 체험 관찰학습 등 키즈존을 운영해 어

린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풍물패 길놀이, 난타 공연, 딸기요제, 특집공개방송 등의 문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안대 끼고 딸기 먹여주기 등 이벤트 행사와 저렴한 가격으로 딸기를 구입할 수 있는 딸기 즉석 경매도 이뤄질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삼레딸기는 당도가 높고 맛이 좋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고품질 삼레딸기를 맛보고 완주 문화예술의 멋도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정신질환 가족 지원한다

완주정신건강복지센터, 보호자 연령대별 '다원' 운영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남인, 마음사랑병원 진료과장)가 정신질환자 가족을 적극 돕는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정신질환자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지원 사업 '다원'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최신 통계인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완주군에 대입했을 때 관내에도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신장애 유병률 8.5%'를 전체 완주군민 9만8,272명(2024년 1월 기준)에 적용시켰을 때 약 8,353명이, '조현병 임상적 발병률 1%'를 적용했을 때는 약 982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호자 연령대를 미성년, 초기성인, 중장년, 노년층으로 구분해 4회기 이상 '집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

질환자를 위한 정신 재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한, 정신 질환 외래 및 입원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완주군 외래진료 이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강남인 센터장은 "정신질환을 달리기 어렵다면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다"며 "비교적 오랜 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고,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도 바로 가족이다"고 설명했다.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삼봉지구 완주군보건소 2층에 위치해있으며, 24시간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109를 운영하고 있다. 정신건강상담 및 치료비 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063-262-306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